

“최고 품질로 고객만족 최선 다할 터”

통기성 필름 세계 일류 기술 보유

1971년 충무로에서 조그마한 인쇄사로 출발하여 30여년 만에 코스닥 상장회사로 성장한 한진 P&C. 한진 P&C가 생산하는 통기성 필름은 국내외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한다. 이 회사가 생산하는 각종 상업 인쇄물도 최고의 품질로 인정받아 수출물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창업주 이종상 회장을 만나 30여년 만에 코스닥 상장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들어봤다.

인쇄업에 투신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 1971년 한진인쇄공사로 출발할 당시만 해도 인쇄산업을 꾸려나가기란 쉽지가 않았습니니다. 당시의 국내 상황이 그리 좋은 편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73년엔 석유파동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어려웠습니니다. 하지만 인쇄의 발전 없이는 문화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인쇄업에 투신하게 되었습니다. 인쇄업에 진출한 이후 유한김벌리, 동서식품, 오투기, 크라운제과, 애경산업, LG전자, 제일제당, 롯데제과 등 대기업의 상품포장용 판지상자를 생산, 공급하게 되어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지요. 현재는 판지생산 외에도 각종 상업인쇄와 통기성 필름을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를 믿고 거래를 해 준 그분들에게 늘 고마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진P&C의 성장 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 1971년에 충무로 인쇄골목 20평 남짓한 공간에서 출발한 한진인쇄공사가 한진 P&C의 첫 출발입니다. 대기업 상품포장용 판지상자를 주로 공급하는 그런 회사로 출발했는데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안되겠다 싶어서 경쟁자가 없는 국외로 눈길을 돌리기 시작했지요. 76년엔 중국에서 영등포로 공장을 신축 이전했고, 다시 79년 지금의 금천구 가산동 공장으로 회사를 이전했습니다. 이후

1987년 무역업 허가를 받아서 국내만이 아닌 외국에도 인쇄물을 수출하는 계기를 마련했고, 1989년엔 개인회사가 아닌 한진인쇄주식회사라는 법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됐습니다. 96년에는 미국 일본에 이어 통기성 필름을 자체 개발하는 쾌거를 이룩했습니다. 그리고 통기성 필름의 매출증대로 인해 인쇄만이 아닌 화학제품 생산업체로서의 의미와 기업이미지 제고를 위해 99년 1월 회사명을 지금의 한진P&C로 바꾸었습니다. 또한 2000년 6월 정부로부터 벤처기업 지정을 받은 데 이어 올 4월엔 코스닥에 상장되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 궁극적으로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투명한 기업 경영을 통해 고객들로부터 좀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공개된 재무제표 때문에 이익을 내기 위해 경영에 더 한층 심혈을 기울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코스닥 상장과정에서 우리사주를 발행하면 사원들 스스로 회사의 이익이 자신의 이익임을 자각하게 되는 부수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회사의 경우도 6%를 우리사주 형태로 발행했으며, 지난 6월에는 우리사주와 주주들에게 20%의 현금 배당을 결의해 사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상장을 한만큼 주주들을 위한 특별한 주가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요.

△ 특별한 관리보다는 보다 많은 이익을 창출해서 주주들에게 좀더 많은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을 시설과 연구에 재투자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진P&C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입니까.

△ 저희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을 꼽으라면 단연 노사화합입니다. 71년 창업이후 지금까지 단 한번의 노사분규도 없었습니다. 1998년 노사협력우량기업, 1999년 근로자의날 정부포상 산업포장을 수상하였으며, 2002년에도 노동부로부터 '2002년 하반기 신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경영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노사분규가 없다는 것은 커다란 축복에 가까운 건데 제가 인복이 있었던지 우리 사원들이 제게 큰 복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실무자에게 책임과 권한을 부여, 자발적으로 경영에 참여토록 하며, 앞으로도 근로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 개선함으로써 이러한 좋은 노사문화를 정착시켜 나가 노사가 모두 신바람 나는 회사를 만들 것입니다.

노사화합을 위해 근로자들의 복지문제에 많은 노력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 우선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사원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종 교육실, 회의실, 휴게실은 물론 체력 단련장과 식당, 기숙사 등을 증축해 좀더 좋은 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회사에서 식당을 직영해 조·중·석식을 회사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87년부터 장기근속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해 10년 장기근속자 51명과 20년 장기근속자 10명이 해외 견학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또

한 회사출자 사우회를 통해 주택자금 및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현재 마무리 공정에 돌입한 신공장은 근로자의 개선제안을 받아들여 무열, 무취의 작업장을 만들고 있으며, 근무 환경 뿐만이 아니라 신 바람나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 공정한 인사관리와 공정한 평가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무지 배정은 면담을 통해 희망업무와 적성을 고려하고 있으며 여사원들의 업무 역할을 확대해 남자 사원들과 동일한 연봉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분기, 반기, 년 생산목표를 달성했을 경우 전 사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데 2000년과 2001년 각각 150%의 성과급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부설연구소 설립 등 철저한 품질관리와 친환경 제품 생산에 남다른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각종 첨단 디지털 장비의 개발로 인쇄장비가 첨단화되고 있으며, 인쇄업체 역시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바람 속에서 기술 및 품질의 발전 없이는 세계경쟁에서 살아남 수 없습니다.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한진P&C는 2001년 11월에 회사 연구개발조직을 분리한 한진P&C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164평의 연구소엔 5명의 연구원이 상주하고 있으며 회사의 신규아이템, 기존 아이템의 품질 및 공정개선, 향후 아이템 등이 여기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일년 남



짓한 기간동안 연구소의 R&D활동을 통해 특허등록 12건의 연구성과를 올렸습니다. 환경 문제에 대한 저의 기본적인 생각을 말하자면 환경은 우리가 후손에게 빌려쓰고 있는 것이므로 손상 없이 물려주는 것이 현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개선하기 위한 목표와 경영계획을 수립하여 문서화하고 지속적인 환경 경영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환경에 대한 마인드를 실천하기 위해 회

특별대담 : 한진P&C 이종상 회장

사는 2001년 3월에 환경단체인 환경정의시민 연대에 가입해 후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생산품 중에서도 특히 통기성 필름에 대한 투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 한진P&C 수지사업본부는 1995년 발족되어 자체 개발기술을 통하여 일회용 기저귀 및 생리대의 방수커버 시트로 사용되는 통기성 필름을 생산, 현재 국내 최고의 생산설비 규모로 성장하였습니다. 통기성 필름 및 비통기성 PE 필름 생산 각 공정에 최신의 설비를 고루 갖추고 높은 수준의 통기성 필름을 생산하여 국내

유수업체 및 대만, 중국, 독일, 호주, 동남아시아지역은 물론 최근에는 중남미 지역에도 수출하는 등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개발, 등록된 기술특허건수가 12건에 이르고 있으며, 특허 출원중인 상품만 22건이 있습니다. 기술평가 우수 벤처기업으로 평가된 이면에도 통기성 필름 기술력이 큰 몫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지사업부는 통기성 필름의 수준 향상을 위해 끊임없는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수출을 많이 하고 계신데 진흥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요.

△ 국내시장과는 달리 외국기업들은 품질에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리 낮은 가격이라도 품질이 형편없다면 수출은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반대로 품질이 좋은 제품에 대해서는 가격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한 편입니다.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는 우리는 품질 혁신을 수출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최신 기계설비와 우수한 기술진은 디자인개발에서 제판, 인쇄, 코팅, 톱슨, 접착, 납품까지의 ONE-STOP SHOP의 생산라인을 구축하여, 고객의 어떠한 요구도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카탈로그, 엽서, 포스터 및 캘린더와 같은 상업용 인쇄물을 제조하는 업체로



◆ 유창준국장과 대담하고 있는 이종상 회장.

서 앞선 기술과 최신 설비는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한발 앞선 새로운 기술을 제시함으로써, 고객에게 보다 나은 인쇄물에 대한 이해를 갖도록 하는 역할을 하여왔습니다. 화려한 원색재현과 엄격한 품질관리 시스템으로 한진P&C의 상업용 인쇄물은 미국, 일본, 호주, 영국 등 해외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최근 신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는데 그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우리는 매월 1회 노사간 대화의 날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사원들의 고충을 수렴하고 있는 셈이지요. 또한 부서별로 고충처리위원을 둬으로서 현장의 불만을 경영진이 올바르게 알고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매 분기 손익, 생산, 영업 등의 경영현황을 직원들에게 가감 없이 공개하면서 열린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매월 1일 최고경영자가 해당 월의 경영실적, 기업환경, 경제상황을 설명해 노사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장 근로자가 참여하는 매월 생산실적 보고회의에서는 개선되는 사원들의 목소리를 향후 경영방침 및 생산현장에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많은 내용들이 노사간에 얼마나 많은 화합의 분위기를 불러오는지 저 자신

부설 연구소 통해 친환경 제품 생산

카탈로그 등 상업 인쇄물 연간 2천만불 수출 목표

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가지 확실한 것은 경영진이 근로자들의 입장을, 근로자들은 경영진의 입장을 이해해 주면서 많은 대화를 통해 서로간에 생길 수 있는 의견 차이를 줄여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쇄업을 경영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 73년 석유파동도 있었지만 그땐 사실 회사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서 나름대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겠지만 IMF 구제금융의 한파 때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특히 국내보다는 수출에 주력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뛰어나는 환율 때문에 일본과의 경쟁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당시 국내 거래선의 부도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는데 오래된 다른 거래선들이 저희를 끝까지 믿어준 것은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어려운 시기에 한진P&C를 믿어준 고객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인쇄업을 경영하시면서 나름대로의 보람으로 느끼시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의 경영철학이 '항상 도전하자'입니다. 고여있는 물은 썩게 마련이지요. 바로 도전하면서 얻어지는 성취감이었습니다. 인쇄업을 경영하면서 느낀 나름대로의 보람이라면 당시의 생산제품이 상품포장되어 각 분야에 널리 보급되는 것을 봤을 때, 또 미력하나마 포장으로 상품의 가치를 제대로 표현했을 때입니다. 또한 저희들의 의무이지만 납세의무를 성실히 했다고 지난 3월 납세자의 날에 재정경제부 장관으로부터 "정도경영으로 성실납세의무이행"이란 표창을 받았을 때 사회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형제가 경영하는 회사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애로사항도 있을 것 같은데요.

△ 형제지간이라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의 경우엔 둘의 장점이 잘 합쳐져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회사 경영에 있어서 좀 저돌적이다 싶을 만큼 강한 추진력이 자량이라면 동생 이종소 사장 같은 경우에는 저의 추진력 이면에서 빠뜨릴 수 있는 것들을 일일이 챙겨줄 수 있는 꼼꼼함이 자량입니다. 이 사장의 그런 꼼꼼함이 없었다면 저의 추진력도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을 겁니다. 둘

다리도 두드려보는 치밀함과 굵은 일도 마다하지 않는 동생이 있었기 때문에 회사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회사 발전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지금까지 우리회사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었던 나름대로의 품질관리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고 품질의 상업 인쇄물과 통기성 필름을 생산 수출함으로써 인쇄종주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업계에 바라는 사항이 있다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 바야흐로 국제화 시대입니다. 국내 시장에만 매달려서는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의 인쇄수준도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만큼 발전해 있습니다. 국내에서 과당 경쟁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기 보다 해외로 눈을 돌려서 국위 선양은 물론 업체들간의 경쟁도 피해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히 세계 시장의 문을 두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대담 유창준 국장·사진 이용우 기자

회사 연혁 및 약력

- 1971. 10. 한진인쇄공사창업
- 1979. 09. 사업장 이전 (서울 금천구 가산동 692·현공장)
- 1995. 12. 공주 제 1공장 매입
- 1998. 12. 공주 제 2공장 매입
- 1998. 12. '98 노사협력 우량기업 선정 (노동부)
- 1999. 04. '99 근로자의 날 정부포상 산업포장 수상
- 1999. 05. '99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대통령표창 수상
- 1999. 09. 인쇄문화의 날 경영관리부문 인쇄문화상 수상
- 1999. 11. 무역의 날 1,000만불 수출의 탑 수상, 산업포장 수상
- 2000. 04. 품질보증 업체지정 Q마크 획득
- 2000. 06. 벤처기업지정 / 기술평가 우수기업
- 2000. 07. ISO 9002 / ISO 14001 통합인증 (본사·구로공장)
- 2000. 09. 공주 제 3공장 매입
- 2001. 11. ISO 9001 / ISO 14001 통합인증 (공주공장)
- 2001. 12. 기업부설 연구소설립 개소
- 2002. 03.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표창 (재정경제부 장관)
- 2002. 04. 코스닥등록(2002년 4월 11일 매매개시)
- 2002. 05. 공주공장 VOC 대기오염방지시설 가동
- 2002. 07. 2002 대한민국 우수공장(공주공장) 인증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 2002. 09. 2002년 신노사문화우수기업 선정 (노동부)